

KIA 타이거즈 '선행 시즌'

김선빈, 한국시리즈 MVP 부상 'EV6' 영신원에 기부

위기가정아동·야구 꿈나무후원 팬들 위한 선물 등 꾸준한 선행 일본에 자체 캠프... 시즌 준비

KIA 타이거즈의 김선빈이 MVP와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줬다.

김선빈은 지난 8일 광주시 동구에 위치한 아동 양육시설 '광주영신원'을 찾아 KIA EV6 차량을 선물했다. 이 차량은 지난 시즌 한국시리즈 MVP에 선정되면서 부상으로 받은 것이다.

김선빈은 장모님을 위해 '효도 선물'로 차량을 선물할 생각이었지만, 가족들과 뜻을 모아 좋은 일을 하게 됐다.

김선빈은 "장모님에게 차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미 장모님께서 차를 가지고 계시고 차남도 차가 있어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됐다. 알아보니가 차량이 필요한 곳이 있었다. 장모님도 흔쾌히 기부를 하겠다고 하셨다"며 "작은 선물이지만 영신원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김선빈은 꾸준하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9년 위기가정아동 후원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김선빈은 2022년 겨울에는 모교인 화순중에 2000만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선물했다. 지난해에는 제주남초 야구부에 '야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응원기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김선빈은 팬들을 위한 나눔에도 아끼 않았다. 2019년 1000경기 출장을 기념해 팬들에게 음료수 1000잔을 대접했고, 지난 11월 우승을 기념해 열린 V12 타이거즈 페스타 행사날에는 MVP를 기념해 제작한 텀블러 1000개를 팬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기본 좋은 기부를 위해 영신원으로 걸음을 했던 김선빈은 9일에는 뜨거운 2025시즌을 위해 일본 오키나와로 향했다.

김선빈은 오키나와에 '자체 캠프'를 꾸리고 본



KIA 타이거즈의 김선빈(왼쪽)이 지난 8일 광주 영신원을 찾아 한국시리즈 MVP 부상으로 받은 KIA EV6 차량을 기증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격적인 시즌 준비에 나서게 된다. 최근 몇 년 처가가 있는 제주도에서 후배들과 비시즌 훈련을 진행했던 김선빈은 이번에는 따뜻하고 익숙한 오키나와로 장소를 옮겨 20일까지 '자체 캠프'를 소화하게 된다.

지난겨울에도 함께 했던 내야수 박찬호, 외야수 박정우 그리고 포수 한준수가 새로 훈련조에 합류했다.

이들은 오키나와 이시카와 구장에 캠프를 꾸리고 구슬땀을 흘릴 예정이다. 프로 구단이 캠프 훈련을 위해 사용하는 장소를 빌린 김선빈은 구장 대여비와 후배들의 체제비를 지원한다.

선배의 통 큰 지원에 박찬호는 차량 렌트를 담당하면서 의기투합했다.

예년보다 '자체 캠프' 규모가 커졌지만 김선빈은 "하던 대로 하겠다"는 각오다.

김선빈은 지난 시즌 최고의 해를 보냈다. 정규시즌 116경기에 나온 김선빈은 139개의

안타를 기록하면서 0.329의 타율을 만들었다. 담장을 넘긴 타구도 9개에 달해 2012년과 2017년 기록한 5개를 넘어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장식했다.

한국시리즈에서도 김선빈의 활약이 돋보였다.

김선빈은 2024 한국시리즈 '5할 타자'다. 5경기에서 17타수 10안타를 기록하면서 0.588의 타율을 남겼다. 3개의 2루타와 3루타도 하나 기록하면서 2타점 3득점에 성공했다.

뜨거운 타격으로 우승 전면에 선 김선빈은 친구 김태군과 박빙의 승부 끝에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김선빈은 "이번 캠프에서 특별히 신경 쓰거나 목표하는 것은 없다. 해왔던 대로 훈련하면서 하던 대로 시즌을 준비하겠다. 후배들과 훈련 잘하고 건강하게 귀국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김도영(오른쪽)이 최근 모교인 광주 동성고를 찾아 1000만원 상당의 야구 용품을 기부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김도영, 모교 3곳에 야구용품 기부

광주대성초·동성중·동성고에 각 1천만원 상당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자신의 모교에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을 하며 KBO MVP에 등극한 김도영이 프로야구 선수 꿈을 키웠던 모교 광주대성초, 광주동성중, 광주동성고에 각각 1000만원 상당의 야구 용품을 기증했다.

김도영은 최근 직접 학교를 방문해 야구부에 용품을 전달하고, 후배 선수들을 격려했다.

김도영은 "모교에서 꿈을 키우며 열심히 훈련한 덕분에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할 수 있었다"며 "모교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후배 선수들이 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했다. 앞으로도 모교에서 훌륭한

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꾸준히 나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모교 사랑을 실천한 김도영은 동성고에서 개인 훈련을 하며 2025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73 SINCE 1952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FA 서건창, KIA에 남는다

1+1년 연봉 2억4천 등 5억 계약 "고향서 다시 우승 트로피 들 것"

베테랑 내야수 서건창이 FA 신분으로 2025시즌에도 고향팀에서 뛰는다.

KIA 타이거즈가 9일 서건창과 계약 기간 1+1년에 계약금 1억원, 연봉 2억4000만원, 옵션 1억6000만원 등 총액 5억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다. 서건창이 2025년 옵션을 충족하면 2026년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2008년 LG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데뷔한 서건창은 14시즌 동안 1350경기에 나서 428안타, 517타점, 853득점, 232도루, 타율 0.298을 기록했다.

서건창은 넥센(현 기움) 시절이었던 2014시즌에는 201안타를 장식하면서 KBO리그 역사상 첫 200안타 고지를 넘은 선수로 이름을 남겼다. 또 올해 135득점이라는 KBO 최다득점 신기록도 작성하며 리그 MVP에 등극했다.

하지만 부상 여파로 굴곡 많은 프로 생활을 한 그는 지난해 고향팀 KIA로 이적해 또 다른 야구 인생을 펼쳤다.

서건창은 2024시즌 94경기에 출전해 63안타 40득점 26타점과 0.310의 타율을 올렸다. 정규시즌 활약으로 우승 질주에 힘을 보탠 그는 한국시리즈 엔트리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통합 우승 순간을 함께 했다.

'주장' 나성범을 필두로 김선빈, 김태군과 '89 동



내야수 서건창이 9일 KIA 타이거즈와 FA 계약을 체결한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기인 서건창은 덕아웃에서는 베테랑의 역할도 수행하며 우승에 기여했다.

풍부한 경험을 지닌 그는 2025시즌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역할을 기대받고 있다.

서건창은 "다시 한번 고향 팀에서 뛸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고참 선수로서의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점이 구단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젊은 선수들과 힘을 합쳐 올 시즌에도 광주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계약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윤이나, LPGA 주목할 신인 선정

윤이나가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위크의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주목할 신인 6명에 선정됐다.

골프위크는 9일 "올해 LPGA 투어 신인 중에는 세계 랭킹 50위 이내 선수가 5명이나 있다"며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신인왕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골프위크가 소개한 주목할 신인 6명은 윤이나 외에 아미사타 미유, 다케다 리오, 이와이 야키에, 이와이 치사토(이상 일본), 잉리드 린드블라드(스웨

덴)다.

윤이나는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상금, 대상 포인트, 평균 타수를 휩쓸었고 현재 세계 랭킹은 29위다.

일본 선수 4명이 윤이나와 신인왕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세계 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는 13위인 아미사타다. 그는 지난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2등을 거뒀고,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했다. 지난해 12월 LPGA 켈리파잉 시리즈에서도 1위로 올해 시드를 획득했다. /연합뉴스



호주 오픈 출전을 앞둔 노박 조코비치(왼쪽)가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주오픈 테니스 12일 개막...조코비치 새 역사 쓴다

메이저 최다 '25회 우승' 노려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가 12일부터 2주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다.

해마다 1월에 열리는 호주오픈은 그해 전 세계 테니스 팬도를 예상할 수 있는 무대로 올해 대회의 가장 관전포인트는 역시 남자 단식에 출전하는 노박 조코비치(7위·세르비아)다.

현재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24번 정상에 올라 이 부문 최다 기록 공동 1위인 조코비치로서는 이번 호주오픈에서 25회 우승을 노린다.

조코비치 외에는 1960~1970년대 선수 생활을 한 마거릿 코트(호주)가 여자 단식 24회 우승 기록을 갖고 있다.

조코비치는 메이저 24승 가운데 10번을 호주오픈에서 기록했다.

1987년생 조코비치로서는 세월이 더 가기 전에

그동안 강세를 나타낸 호주오픈이 메이저 25승을 달성할 가장 좋은 기회다. 그의 최근 메이저 우승은 2023년 US오픈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현역 시절 경쟁 관계였던 동갑내기 앤디 머리(영국)를 코치로 선임해 더욱 눈길을 끈다.

조코비치를 견제할 세력은 2000년대에 태어난 선수들인 안니코 신네르(1위·이탈리아)와 카를로스 알카라스(3위·스페인)다. 지난해 이 대회 4강에서 조코비치를 꺾고 우승한 신네르는 대회 2연패에 도전하고, 알카라스는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호주오픈에서만 우승이 없다.

만일 알카라스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 남자 선수로는 역대 최연소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이 부문 기록은 라파엘 나달(은퇴·스페인)이 2010년 달성한 만 24세다. 2003년 5월생 알카라

스는 현재 만 21세다.

여자 선수로 범위를 넓히면 만 19세에 4대 메이저를 휩쓴 슈테피 그라프(은퇴·독일)가 있고, 세리나 윌리엄스(은퇴·미국)도 만 21세에 4대 메이저 우승컵 수업을 끝냈다.

여자 단식에서는 아리나 사발렌카(1위·벨라루스)가 3년 연속 우승을 노린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준우승한 파리 울리픽 금메달리스트 정진원(5위·중국)의 성적도 관전 포인트다.

한국 선수들은 올해 남녀 단식 예선과 본선에 한 명도 나가지 못했다.

한국 선수가 테니스 메이저 대회 남녀 단식 예선, 본선에 한 명도 출전하지 못한 것은 2016년 Wimbledon 이후 이번이 약 9년 만이다.

올해 대회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은 350만 호주 달러(약 31억7000만원),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패해도 13만 2000호주 달러(약 1억2000만원)를 준다. /연합뉴스